

할례, 유월절, 만나에 관한 해석학적 논쟁: 사본 간의 해석학적 차이인가? 편집사의 흔적인가?*

이은우(장신대)

1. 들어가며

여호수아 5장 2-12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직후,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할례의 회복, 유월절의 준수, 만나의 중단이라는 세 가지 사건을 연속적으로 서술하는 본문이다.¹ 이 본문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

* 이 논문은 2025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이 논문은 제129차 한국구약학회 추계학술대회(2025.9.26.)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다수의 학자는 여호수아 5:1을 4장의 요단 강 도하 이야기의 결론으로 이해한다. 이를 위해서는 J. A. Soggin, *Joshua: A Commentary*. Trans. John Bowden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2), 93-98; Marten H. Woudstra, *The Book of Joshua*. NICOT. Grand Rapids, MI: Eerdmans, 1981, 97-104; Robert G. Boling and G. Ernest Wright, *Joshua: A New Translation with Notes and Commentary* (AYB, vol. 6.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95), 184-186; Trent C. Butler, *Joshua 1-12* (WBC, vol. 7A.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4), 320-324를 참고하라. 반면에 올드(Auld)는 LXX 바티칸 사본을 근거로 5:1을 5장의 도입부로 이해한다. A. Graeme Auld, *Joshua Jesus son of Naue in Codex Vaticanus* (Leiden: Brill, 2005), 121-133를 참고하라. 여호수아 5:2-12는 구조적·신학적으로 매우 밀도가 높은 본문이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할례의 이야기(2-9절)는 언약적 정체성과 순종 주제, 그리고 아브라함과 출애

의 기록이 아니라, 광야 시대의 종결과 약속의 땅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신학적 전환점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본문이 보이는 구조적·언어적 다양성과 사본 간의 차이는 이 본문이 하나의 전승이 아니라, 여러 시대의 편집층이 중첩된 복합적 구성물임을 암시한다.

이 구절의 사본들은 마소라 본문(MT), 칠십인역(LXX), 사해사본 4QJosh^a, 사마리아 오경(SP)² 등으로 전해지며, 각 사본은 상호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LXX는 ‘두 번째 할례’(5:2)와 같은 반복 표현을 생략하여 보다 단순한 전승형태를 보존하고 있으며, 반면 MT는 반복, 강조, 어원적 언어유희 등을 추가하여 신학적 의도를 강화한 후기 편집의 흔적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필사 오류나 번역 차이를 넘어, 각 시대의 신학적 재해석과 공동체 정체성의 재구성 과정을 반영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기존 연구는 주로 전승사적 접근(Wellhausen, Noth)과 편집비평적 접근(van der Meer, Dozeman, Butler, Fritz, Nelson) 으로 나누어 왔다.³ 그러나 이들 연구는 각각 특정 층위나 사본에 집중하여, 본문 전체의 사본 간 변이와 편집의 통합적 상호작용을 충분히 조명하지 못했다. 또한 SP와

굽 전승과의 의례적 연속성을 보여주며, 유월절의 준수(10-12절)는 가나안 입성을 예배학적 틀 속에 배치하여 광야 전승(만나)과 땅 신학(가나안의 소산)을 연결한다. 이러한 이유로 5:2-12는 편집사적·본문비평적 논쟁의 중심이 되어 왔다. 특히 MT, LXX, 사해사본(4QJosh^a), 사마리아 오경(SP)의 상호 비교 속에서 다양한 변이와 확장층이 드러나며, Auld, Butler, Van der Meer, Dozeman과 같은 학자들은 이 구절에 여러 편집층(기본 전승, 신명기계 확장, 제사장적 재편집)이 공존한다고 주장한다(M. van der Meer, *Formation and Reformulation: The Redaction of the Book of Joshua in the Light of the Oldest Textual Witnesses* (Leiden: Brill, 2004), 249-289; T. B. Dozeman, *Joshua 1-12* (AB 6B;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5), 366-301을 참조하라.). 이에 비해 여호수아 5:13-15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짧은 신현 이야기로, 신학적으로는 중요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비교적 독립적인 소단락을 이루며, MT, LXX, 4QJosh^a, SP 간의 주요 변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5:2-12와 같은 편집층적 누적의 증거가 미약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여호수아 5:2-12에 집중한다.

2 사마리아 오경(SP)은 주로 창세기 17장의 할례 관련 본문을 참고하게 된다.

3 아래 연구사를 참조하라.

4QJosh^a의 존재는 MT와 LXX 사이의 단순한 이분법적 틀을 넘어, 사본 전통의 다층적 연속성을 보여주지만, 이에 대한 심층적 비교는 여전히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호수아 5장 2-12절의 본문을 대상으로, MT, LXX, SP, 4QJosh^a 간의 사본 비교를 통해 본문비평적 차이를 규명하고, 동시에 각 시대의 편집층이 이전 층위를 어떻게 재해석하거나 재형성 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문이 단순한 역사 서술이 아니라, 광야 이후 공동체 정체성의 신학적 재구성으로 발전한 과정을 규명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첫째, 사본 간 어휘·형태소·통사 비교를 통해 본문비평적 차이를 분석하고, 둘째, 각 편집층의 언어적·신학적 특징을 근거로 편집사적 발전 단계를 재구성하며, 셋째, 이러한 변화가 각 시대의 정치적·사회적·종교적 배경(앗수르-바빌론-페르시아 제국기)과 어떻게 상호 연관되는지를 고찰한다.

이 연구는 본문비평(Textual Criticism)과 편집비평(Redaction Criticism)을 통합하여, 여호수아 5장 2-12절이 LXX의 단순 전승에서 MT의 복합 신학적 서사로 발전한 과정을 밝힘으로써, 성경 본문이 공동체의 역사와 신앙 속에서 어떻게 다층적·동태적으로 형성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데 의의를 둔다.

2. 여호수아 5장 2-12절에 관한 연구사

여호수아 5장 2-12절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19세기말 벨하우젠(J. Wellhausen)의 문서가설에 기반한 접근에서 시작하여, 20세기와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본문비평, 사본학, 편집사, 예전사적 해석을 아우르는 다

www.kci.go.kr

양한 연구사적 흐름을 형성해 왔다. 본 단락은 길갈에서의 집단 할례와 유월절, 그리고 만나의 중단이라는 세 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출애굽기의 전승과 신명기적인 편집, 사제적 예전 전승이 교차하는 중요한 본문으로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본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사본 전승(MT, LXX, 4QJosh^a), 편집층 구분, 언어·문법적 특징, 그리고 시대적·정치적 맥락이 긴밀히 얽혀 있으며, 연구자들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였다.

가장 먼저, 벨하우젠은 여호수아 5장 10-12절에 나타나는 “14일 저녁”, “그 다음 날”과 같은 절기·달력 언어를 사제적 전승(P)의 흔적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이 본문을 정복 서사의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후기 사제적 전승이 개입한 예전적 보강으로 보았다. 그 결과 5장 2-12절은 정복 서사를 봉인하는 신학적 장치로 읽혔으며, 여호수아에서 문헌 비평적 접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단락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⁴

노트(M. Noth)는 그의 신명기 역사서(DtrH) 이론 속에서 본문을 새롭게 자리매김하였다. 그는 여호수아-열왕기 전체를 하나의 역사 서술로 보았으며, 본문의 “오늘까지”(הַיּוֹם הַזֶּה, v. 9)와 같은 문구가 신명기 사가의 지명 설화 기법을 반영한다고 해석하였다. 특히 5장 2-9절의 집단 할례와 길갈 지명의 어원화는 단순한 전승이 아니라, 신명기 역사가가 세대 교체와 이스라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삽입한 장치로 간주되었다.⁵ 이러한 관점은 본문의 기본 서사 위에 신명기적인 보강이

4 J. Wellhausen, *Prolegomena zur Geschichte Israels* (Berlin: Reimer, 1883), 특히 여호수아 5:10-12의 사제적 달력 언어 분석에 대한 논의는 R. D. Nelson, *Joshua*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7), 318-321, 332-342에서 요약되어 있다.

5 M. Noth,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Studien* (Halle: Niemeyer, 1943). 노트의 신명기계 역사 이론과 본문의 “오늘까지” 구절에 대한 해석은 Nelson, *Joshua*, 318-321 및 V. Fritz, *Das Buch Josua* (HAT I/7; Tübingen: Mohr Siebeck, 1994), 56-60에 반영되어 있다.

더해졌다는 연구 전통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홀렌버그(J. Hollenberg)는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붉은 곡식”(חֶלֶק)이 결합된 5장 10-12절을 분석하며, 이 부분이 후기 편집층의 산물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는 본문의 절기 언급을 당시의 실제 예전 질서와 연결시키며, 정복 서사에 후대 사제적 예전 관습이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⁶

이후 본문비평적 논의는 MT와 LXX의 관계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홈즈(R. P. Holmes)는 여호수아서의 히브리어와 헬라어 본문을 체계적으로 비교하면서, LXX의 단축과 치환을 주로 번역과 전달 과정의 산물로 이해하였다. 그는 MT의 정본성을 강하게 옹호하면서, LXX를 상대적으로 이차적이고 불완전한 전승으로 간주하였다.⁷ 이에 반해 구딩(D. W. Gooding)은 LXX의 차이를 단순한 번역상의 오류로 보지 않고, 의도적이고 문학적인 재구성의 결과로 이해하였다. 그는 LXX 여호수아를 대안적 판본, 혹은 해석적 전승으로 간주하였으며, 이는 후대 연구자들에게 LXX를 독자적 전통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⁸

토브(E. Tov)는 본문비평과 번역비평을 체계적으로 결합하면서, 사해사본(특히 4QJosh^a)의 증거를 본문사 논의에 도입하였다. 그는 여호수아에서 LXX가 단순한 자유 번역만이 아니라, 때때로 MT와는 다른 히브리어 대본(Vorlage)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예컨대 5장 2절에서 4QJosh^a가 “두 번째”(רִנְיָ)를 결여한 것은, MT의 해당 표현이

6 Hollenberg의 편집사적 구분은 Fritz, *Das Buch Josua*, 56-60 및 T. C. Butler, *Joshua* (WBC 7; Waco: Word Books, 1983), 74 n. 1에 인용되어 있다.

7 R. P. Holmes, *Joshua: The Hebrew and Greek Texts* (London: 1914). 그의 MT 우선 논증은 Butler, *Joshua* (2014), 318; 74 n. 1 및 Nelson, *Joshua*, 319에 요약되어 있다.

8 D. W. Gooding, “Problems of Text and Midrash in the Book of Joshua,” *Textus* 1960s-70s 연재. 그의 ‘의도적 재구성’ 논지는 Butler, *Joshua* (2014), 318 및 Nelson, 위의 책, 318-321에 요약되어 있다.

후대의 논리적 보강임을 보여 주는 중요한 증거로 해석되었다.⁹

마조르(M. Mazor)는 LXX 여호수아의 단축과 배열 차이를 분석하면서, 특정 단락에서는 오히려 LXX가 보다 원형적인 전승을 보존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는 특히 5장 2-9절의 정결 의례 서술이 LXX에서 단순화된 점을 들어, LXX가 초기 서사의 흔적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⁰ 올드(A. G. Auld)는 여호수아 전승을 사무엘-열왕기, 역대기의 관계처럼 다중 서사본의 산물로 이해하였다. 그는 LXX를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재서술된 전승(retold tradition)”으로 간주하면서, 본문 차이를 전승의 평행적 전개로 설명하였다.¹¹

이와 함께, 비버슈타인(K. Bieberstein)은 여호수아 5장 10-12절을 요단-여리고-길갈 지형과 축제 달력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의 실제 예전적 통합이 본문에 반영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특히 “볶은 곡식”과 “그 다음 날”과 같은 어휘가 고대 이스라엘의 예전사적 맥락을 반영한다고 보았다.¹² 덴 헤르톡(C. G. den Hertog)은 LXX 여호수아의 그리스어 지명과 민족명에 주목하여, 여호수아 5장 12절의 “χώρα τῶν ψοινίκων”(종려의 땅)이 후대 필사 과정에서 “φοινίκη”(페니키아)로 오독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는 이 현

9 E.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3rd ed.; Minneapolis: Fortress, 2012), 343-350. 4QJosh^a의 증거와 LXX의 전거 문제는 Butler, *Joshua* (2014), 317-321 및 T. Dozeman, 위의 책, 295-301에서 상세히 논의된다.

10 M. Mazor, 관련 논문들(특히 “The Septuagint Translation of Joshua” 계열). 그의 OG 우선 논증은 Dozeman, 위의 책, 318-321에 정리되어 있다.

11 A. G. Auld, *Joshua Retold: Synoptic Perspectives* (Edinburgh: T&T Clark, 1998). 그의 다중 서사 전승 가설은 Butler, *Joshua* (2014), 318 및 Nelson, 위의 책, 319에 요약되어 있다.

12 K. Bieberstein, *Josua, Jordan, Jericho*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5). 유월절-무교절-초실절 통합 해석은 Dozeman, 위의 책, 1-12, 300-301 및 Butler, *Joshua* (2014), 320에서 언급된다.

상이 여리고 전승(“종려의 성”)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¹³

이후의 주석들은 본문의 사본 전승과 편집층 구분을 보다 정교하게 체계화하였다. 넬슨(R. D. Nelson)은 여호수아 주석(OTL)에서 본문 전체를 “정복에 적합한 예전적 정당화”로 파악하였다. 그는 집단 할례, 유월절, 만나의 중단이 문학적으로 치밀하게 배열된 구조임을 지적하면서, MT의 확대와 LXX의 단축을 병렬적으로 제시하였다. 넬슨은 본문을 신명기적인 확대와 사제적 달력 정합이라는 두 축 위에서 해석하였다.¹⁴ 프리츠(V. Fritz)는 5장 2-9절을 신명기적인 편집(RedD)으로, 5장 10-12절을 제사장적인 편집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길갈의 민속 어원화(5:9)를 후기 삽입으로 간주하면서, 기본층과 신명기계 보강, 제사장적 달력 편집이라는 삼층 구조를 제안하였다.¹⁵

반 더 메어(J. C. van der Meer)는 *Formation and Reformulation of the Book of Joshua*에서 5장 2-12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LXX를 단순한 열등 판본이 아니라 의도적 해석 번역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특히 2절의 LXX 표현 “κάθισον”(앉아라)을 이집트의 할례 도상과 연결하여, 할례를 정결·정화 의례로 해석하는 신학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12절의 “χώρα τῶν ψοινίκων”을 요세푸스와 스트라본의 증거를 활용하여 “종려 지역”으로 해명하였으며, 덴 헤르톡의 지적처럼 “페니키아”로의 후대 오독을 비판하였다. 반 더 메어는 MT와 LXX의 차이를 해석적 재정식화 과정으로 설명하며, MT는 보강된 전승, LXX는 해석적 변형이라는 양방향성을 강조하였다.¹⁶

13 C. G. den Hertog, “Studien zum Buch Josua,” VT 50 (2000), 110-125. LXX의 ψοινίκες/ψοινίκη 문제는 van der Meer, 위의 책, 404-408 및 Dozeman, 위의 책, 296에서 논의된다.

14 Nelson, 위의 책, 318-342.

15 Vokmar Fritz, *Das Buch Josua*, (Tübingen: J. C. B. Mohr, 1994), 56-63.

16 Van der Meer, 위의 책, 397-415.

버틀러(T. C. Butler)는 MT, LXX, 4QJosh^a의 증거를 균형 있게 병치하였다. 그는 5장 2절의 “두 번째”(שני)를 후대 논리적 보강으로 볼 수 있으며, 8절의 “치유 기간”과 12절의 만나 중단을 군사적 재가동의 서사 봉인으로 해석하였다. 버틀러는 본문 구조표와 본문비평적 주석을 함께 제시하면서, 흠즈와 구딩의 논쟁을 요약하여 연구사를 정리하였다.¹⁷

도즈만(T. Dozeman)은 4QJosh^a, LXX, MT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였다. 그는 4QJosh^a에 “두 번째”(שני)가 결여되어 있는 사실을 근거로, MT의 해당 표현이 후기적 보강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LXX의 “κάθισον”을 이집트 할례 도상과 헤로도토스(H. Herodotus)의 기록과 연결하여, 할례를 정결·정화 의례로 읽었다. 5장 10-12절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의 유월절-무교절-초실절 규정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출애굽기의 재앙 회피 기능이 함께 반영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도즈만은 본문비평과 예전사, 도상학을 결합하여, MT는 후기 사제적 예전화, LXX는 정결 중심 해석본, 4QJosh^a는 초기 서사의 흔적이라는 삼각 구도를 정식화하였다.¹⁸

이와 같이 여호수아 5장 2-12절에 대한 연구는 문서비평에서 출발하여, 본문비평, 사본학, 예전사, 정치·사회사적 맥락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인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오늘날 연구자들은 본문을 단순한 정복 서사의 일부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 정체성과 예전 전통, 그리고 편집사의 복합적 산물이자 MT-LXX-사해사본이 교차하는 본문사적 결절점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에는 여전히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17 Butler, *Joshua* (2014), 317-336.

18 Dozeman, 위의 책, 295-301.

대부분의 연구가 MT와 LXX에 집중되어 4QJosh^a와 SP의 독자적 증언이 충분히 통합되지 못했다. 둘째, 언어학적·형태론적 분석과 더불어 정치·사회사적 맥락을 포괄적으로 결합한 시도가 아직 제한적이다. 셋째, 기존 연구들은 각 사본의 변이를 신학적·편집적 부분적인 층위로 구분하는 데 성과를 보였으나, 사본들 간의 상호작용과 편집의 동향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여호수아 5장 2-12절에 대한 새로운 연구는 단순한 사본 비교를 넘어, MT·LXX·4QJosh^a·SP를 종합적으로 교차 검토하고, 언어·문법적 차이와 더불어 시대적·정치적 배경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본문이 단순한 정복 이야기의 일부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과 제의적 전통을 재구성해 온 편집사적 결절집임을 밝혀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3. 본문비평

1) 본문비평

2절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MT는 **גִּישׁוּב**〈슈브, “다시”〉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할례를 명령받았음을 강조하는 반복적 명령의 뉘앙스를 지닌다. 그러나 LXX는 이 부분을 **καθίσας** (“앉아”)로 번역하여 전혀 다른 의미를 제시한다. 이는 단순히 동작을 지시하는 LXX와 달리, MT는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어

져 온 할례 의례의 한 국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¹⁹

또한 본문에서 중요한 변이는 שְׁנִיַּת〈쉐니트〉라는 표현과 관련된다. MT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출애굽 당시 이미 한 차례 할례를 받은 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나 할례 받지 못한 세대를 구별한다. 다시 말해, 애굽에서 출발한 세대가 이미 행한 할례와, 광야 40년 동안 새로 태어난 세대가 받아야 할 “두 번째” 할례를 구분하려는 편집적 장치이다. 이에 반해 LXX와 사해사본 4QJosh^a에는 이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은 본문 형성사의 맥락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MT는 반복적 표현과 “두 번째”라는 강조를 통해 편집층의 신학적 의도를 드러낸다. 즉, 광야 세대의 불순종과 죽음,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언약 갱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LXX와 4QJosh^a는 이러한 후대적 신학적 해석이 배제된 보다 단순하고 원시적인 전승을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SP는 할례와 관련된 창세기 17장 7절 이후에 독특한 삽입 문구를 포함한다.

וְכִי תִבְּאוּ אֶל אֶרֶץ כְּנָעַן תִּשְׁמְרוּ אֶת הַבְּרִית הַזֹּאת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언약을 지키지니라.”) 이 구절은 MT와 LXX에는 나타나지 않고 SP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아브라함 언약과 가나안 정복 전승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려는 조화적 편집의 산물로 이해된다.²⁰ 또한 SP는 17장 23절에 כְּכַתּוּב בַּתּוֹרָה (“율법에 기록된 대로”)라는 구절을 추가함으로써, 후대 율법 체계와의 일치를 시도한다.²¹ 이는 SP가 이미 모세 율

19 Soggin, 위의 책, 94.

20 Abraham Tal, Moshe Florentin, eds., *The Samaritan Pentateuch: The Israelite Samaritan Version of the Torah* (Leiden: Brill, 2010), 188-190.

21 Stefan Schorch, “The Samaritan Version of the Pentateuch and Its Relationship to the MT and LXX,” *Textus* 28 (2019): 123-142.

법의 권위를 내포한 후기 편집층(post-Pentateuchal redaction)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여호수아 5장 2절의 본문 변이는 단순한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신들의 언약적 정체성을 어떻게 기억하고 재구성했는가를 보여주는 편집비평적 지표라 할 수 있다.

이 모든 본문 차이를 종합하면, 여호수아 5장 2절의 변이는 단순한 번역상의 차이가 아니라, 편집비평적 지표(redaction-critical marker)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히브리 전통, 그리스 번역 전통, 그리고 사마리아 전통에 속한 각각의 공동체가 시대적·예전적 맥락 속에서 자신들의 언약 정체성과 신학적 자기이해를 재구성(reconstruction)해 왔음을 드러낸다.

4절

MT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음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즉, 출애굽 1세대와 광야 2세대를 대비시켜 새로운 세대의 언약 갱신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LXX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타나지 않는다. 넬슨은 이 차이를 지적하면서, LXX가 오히려 원형에 가까운 전승을 보존하고 있으며, MT가 후대에 신학적 해석을 덧붙여 서술을 확장한 것으로 보았다.²²

MT는 이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장정들이 모두 **מתו במדבר** **בדרך** (“광야 길에서 죽었다”)고 강조한다. 이는 광야 세대가 언약에 불순 중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는 신명기적 역사관과 일치한다(신 1:34-40). 반면 LXX는 이 설명을 포함하지 않는다. 본문비평적으로 볼 때, LXX의 짧은 형태가 더 난해한 독법(*lectio difficilior*)이며, MT가 후대에 신학적 이유를 부연하여 서술을 확장했다고 볼 수 있다.

22 Nelson, 위의 책, 76.

즉, MT는 광야 세대의 불순종-죽음-새로운 세대의 언약 갱신이라는 신학적 구도를 강화하기 위해 이 설명을 첨가한 것이다.

따라서 본문 차이는 단순한 전승의 손실이 아니라, 신명기계 편집층의 신학적 개입을 보여준다. LXX는 간단히 “할례를 받지 않은 세대”만을 언급하며 의례적 사실에 집중하지만, MT는 “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의 대비” 및 “불순종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신학적 메시지를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을 해석하여 교훈화한 편집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5절

여호수아 5장 5a절에서 MT는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이 할례를 받았다”는 구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LXX에는 이 표현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²³ 이 차이는 본문 형성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LXX는 불필요한 중복이 나타나지 않는 간결한 전승을 보존하고 있으며, 오히려 MT는 이후의 편집자가 광야 세대의 운명(5:6-7)과 출애굽 세대의 상태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의도를 담아 보충 삽입한 것으로 이해된다.²⁴

특히 MT는 출애굽 세대가 이미 할례를 받았으나, 광야에서 태어난 후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논리를 분명히 제시한다. 이 구분은 “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다시 할례를 행해야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신학적·제의적 해석을 제공한다.²⁵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후행적 교

23 LXX는 본절에서 MT의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은 할례를 받았다”는 진술을 완전히 생략한다. 이는 초기 전승의 간결성을 반영한다.

24 R. D. Nelson, 위의 책, 76.

25 M. H. Floyd, “Deuteronomistic Historiography and the Circumcision at Gilgal,” *JBL* 111 (1992), 213-230.

훈화(didacticizing) 과정에서 부가된 것으로 보이며, LXX가 보존한 간결한 형태가 더 원초적인 전승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본문비평의 원칙인 *lectio difficilior potior*(더 어려운 읽기가 더 원문에 가깝다)와도 일치한다.²⁶

따라서 여호수아 5장 5a절은 MT가 후대 편집층, 특히 신명기적인 편집자가 공동체 정체성과 언약 준수를 강조하기 위해 삽입한 교훈적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비해 LXX는 더 단순한 역사 서술, 즉 “광야 세대의 무할레 상태”만을 보존하여 원래의 전승적 핵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된다.²⁷

6절

a. “40년”과 “42년”의 차이

MT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다고 기록한다. 반면 LXX는 독특하게 “*τεσσαράκοντα δύο*”(“42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²⁸ 이 변이는 단순한 필사 오류라기보다, 서로 다른 전승 전통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버트러는 LXX의 수사가 민수기 전승과의 연결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민수기 10장 11절-14장 34절에는 이스라엘이 정탐 사건 이후 40년을 방황했다는 서술이 있으나, 몇몇 본문 전승은 이 기간을 42년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²⁹ 반대로 MT는 신명기 1장 3절과 2장 14절과 같은 신명기계 역사 서술의 영향을 받아, 신학적 상

26 E.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3rd ed.; Minneapolis: Fortress, 2012), 322–324.

27 van der Meer, 위의 책, 259–263; Dozeman, *Joshua 1-12* (AB 6B;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5), 331–334.

28 LXX, *Codex Vaticanus*; cf. A. Rahlfs, *Septuagint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35).

29 Butler, *Joshua* (2014), 319.

징성을 지닌 “40년”이라는 숫자를 굳혔다고 볼 수 있다.³⁰ 결국 “42년”이라는 LXX의 독법은 더 난해한 독법(*lectio difficilior*)로서 원초적 전승의 흔적을 보존한 것일 가능성이 크며, “40년”은 신명기적인 편집층에 의해 신학적으로 정리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b. 순종과 불순종의 강조점

본문에서 MT는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지 못한 이유를 “모든 군사들이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설명은 곧 광야 세대의 죽음을 언약 불순종과 연결시키는 신학적 장치이다. 그러나 LXX는 이러한 직접적인 사망 원인 진술을 생략하고, 대신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방황했다고 요약한다.³¹ 이는 구체적 설명을 덧붙인 MT보다, 오히려 더 단순하고 원초적인 신학적 해석을 보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LXX는 순종/불순종의 원리에 집중하여 본문을 해석하고, MT는 그 원리를 역사적 사건(광야 세대의 전멸)로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여호수아 5장 6절은 전승사의 관점에서 두 가지 발전 단계를 보여준다. LXX는 난해하지만 원초적인 형태(42년, 불순종에 집중)를 보존하고 있으며, MT는 후대 신명기적인 편집층이 역사적·신학적 설명(40년, 군사들의 죽음)을 첨가하여 본문을 재구성한 결과물이다. 이러한 차이는 본문이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각 시대의 신학적 요구와 공동체의 자기 이해 속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재편집된 문헌임을 보여준다.

30 Cf. Deut 1:3; 2:14.

31 Cf. Nelson, 위의 책, 78-79; van der Meer, 위의 책, 265-268.

7절

여호수아 5장 7절의 핵심은 불순종 세대의 단절과 새로운 세대의 계승을 설명하는 서술이다. MT는 “그들의 아들들을 그 대신 세웠다”라는 표현을 통해, 언약에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죽은 세대 대신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셨음을 강조한다. 여기서 동사 בָּרַךְ (혜킴)은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 ‘후계자로 세움’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곧 편집자는 내러티브의 진행 속에서 새로운 세대의 탄생을 언약 계승 의례와 직결시킨 것이다.³²

LXX는 이를 간결하게 번역하여, MT의 신학적 확장을 요약한다. LXX는 “ἀντὶ τούτω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단순히 “그들을 대신하여”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이는 MT의 확장된 신학적 의미를 축약한 것으로, 불순종 세대와 새로운 세대의 교체라는 사실만을 명확히 드러낸다.³³ 사해사본 4QJosh^a는 현존하는 증거에서 MT와 본질적으로 일치하며, 특별한 생략이나 첨가 없이 동일한 핵심을 보존한다.³⁴

결국, 본문비평적으로 볼 때 MT는 불순종 세대의 사망 원인을 언급한 뒤, 그들의 아들들이 대신 세워졌다는 점을 신학적으로 강조하면서 제의적 당위성을 덧붙였다. 반면 LXX는 이러한 세부적 신학적 확장을 생략하고, 대체 세대의 등장이라는 사실만 간단히 보존했다. 이 차이는 MT가 포로기 이후 혹은 페르시아 시대 편집층에서 정체성 재구성의 목적 아래 본문을 재형성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MT 여호수아 5장 6-7절은 아시리아-바빌론 포로기를 거친 뒤 페르시아 시대 공동체가 언약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편집한 결과물로

32 Nelson, 위의 책, 73-79.

33 Soggin, 위의 책, 71-78.

34 van der Meer, 위의 책, 249-329.

이해될 수 있다.³⁵

9절

MT는 “애굽의 치욕”에서 **הַרְפָּה**는 여성 단수 명사로 쓰여, 이집트 노예 상태와 불순종의 과거가 하나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위에 남아 있었음을 지칭한다. 따라서 할례를 통한 정체성 회복은 단일한 “치욕”의 제거로 강조된다. 그러나 탈군 전승에서는 종종 **הַרְפָּה**를 복수적 개념으로 이해하여, 이스라엘이 겪은 여러 형태의 모욕과 압제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한다.³⁶

LXX는 이 대목을 *ὀνειδισμὸς Αἰγύπτου* (“이집트의 모욕/치욕”)라고 번역한다. 즉, MT의 **הַרְפָּה**를 그대로 의역한 번역어를 사용하며, 이 단어 자체는 삭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LXX는 이어지는 **עַד הַיּוֹם הַזֶּה** (“오늘까지”)라는 구절을 생략한다. 이 생략으로 인해, LXX의 번역은 사건을 현재 독자에게까지 확장하는 후대적 편집의 흔적을 제거한, 보다 간결하고 원시적인 형태를 보존한 것으로 평가된다.³⁷

따라서 **הַרְפָּה** 자체는 LXX에도 존재하지만, “오늘까지”라는 MT의 추가적 구절은 후대 신명기적 편집층에서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차일즈(B. S. Childs)는 “오늘까지” 공식이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후대 공동체와의 신학적 연결 장치로 반복된다고 분석했으며,³⁸ 이는 MT가 전승을 현재의 독자적 상황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반면 LXX는 이러한 확장 없이 원초적 형태를 전승함으로써, “치욕 제거” 사건을

35 Butler, *Joshua* (1983), 60-65; Boling and G. E. Wright, 위의 책, 184-186; E.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3rd ed.; Minneapolis: Fortress, 2012), 322-324.

36 Soggin, 위의 책, 93-95.

37 Butler, *Joshua* (1983), 138-139.

38 B. S. Childs, “A Study of the Formula ‘Until This Day’,” *JBL* 82 (1963), 283.

단순히 기념하는 차원에서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본문비평적으로 볼 때, LXX는 **הַגִּלְגָּל**라는 핵심 용어는 보존하면서도 “오늘까지”라는 MT의 편집적 요소를 생략하여, 보다 원시적이고 간결한 전승을 반영한다. 이는 여호수아 5장 9절의 본문사 연구에서, LXX가 초기 전승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며, MT는 후대의 신학적·편집적 확장을 반영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10절

MT는 **וַיַּחַנּוּ בְנֵי יִשְׂרָאֵל בְּגִלְגָּל**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다”)라는 어구를 추가한다. 이는 지리적 정착의 보고를 넘어, 길갈이 단순한 지나가는 장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적·정치적 중심지로 설정되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한다. 여호수아서 전반에서 길갈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학적 기념과 갱신의 장소로 계속 등장한다(수 9:6; 10:6; 14:6 등).

LXX는 이 어구를 생략하여, 단순히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사건 중심의 진술만을 전달한다. 이는 LXX가 종종 서사적 장식이나 정착 강조 구절을 줄이는 경향을 보이는 사례로 이해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LXX는 길갈을 중심적 정착지로 강조하는 후대 편집 의도를 반영하지 않은, 보다 원초적이고 간결한 전승을 보존한 것으로 해석된다.

4QJosh^a는 MT 전통과 유사하게 길갈을 강조하나, 편집의 일관성 여부는 단편적으로만 확인된다.

이 차이는 단순한 문학적 생략이 아니라, 길갈의 신학적 위상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드러낸다. MT는 길갈을 “애굽의 수치를 굴러버린 곳”(5:9)으로 선언한 뒤, 이어서 “이스라엘이 길갈에 거주하였다”(5:10)라고 덧붙임으로써, 이 장소를 구속사적 전환점으로 설정한다. 반면, LXX는 이러한 편집적 강화 없이, 단순히 유월절 사건만을 중심으로 본

문을 전달하여 보다 원시적·사건 중심적 서술을 유지한다.³⁹

11절

MT는 **הַפֶּסַח אַחֲרַיְתָּהּ** (“유월절 다음 날에”)라는 구체적 시간 표현을 추가한다. 이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유월절-가나안 땅 소산 취식-만나 중단이라는 시간적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편집 장치이다. 곧, 출애굽과 광야의 양식(만나)이 끝나고, 약속의 땅 소산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구속사적 전환점을 의도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LXX는 **ἐν ταύτῃ τῇ ἡμέρᾳ** (“그 날에”)라는 간단한 표현을 사용하며, MT의 “유월절 다음 날”을 생략한다. 이는 사건의 시간적 세부 연결보다는, 유월절과 소산 취식을 동일한 날에 일어난 사건으로 압축하여 전승한 것이다. 전승 비평적으로 볼 때, 이는 더 원초적이고 단순한 형태를 보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⁴⁰

12절

LXX는 사건 중심적 서술로서, 불필요한 신학적 강조 없이 간결하고 원초적인 전승을 보존한다. MT는 **אַחֲרַיְתָּהּ** (“다음날에”)라는 어구를 첨가하여 유월절과 무교병의 절기 제의력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며,⁴¹ 이런 반복적·강조적 진술은 광야 시대가 완전히 종결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더 강하게 드러내려는 편집의 흔적으로 이해된다. 4QJosh^a는 MT 전통과 유사하여 “만나의 중단”을 언급하나, 강조 표현의 일관성은 MT 편집에 가깝다.⁴²

39 Butler, *Joshua* (1983), 138-139; Dozeman, 위의 책, 330-333.

40 Nelson, 위의 책, 76-77; Dozeman, 위의 책, 335.

41 Butler, *Joshua* (2014), 320.

42 van der Meer, 위의 책, 311-315.

여호수아 5장 11-12절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전환을 서사적으로 표현한다. LXX는 사건을 단순 기록으로 남겨 사건의 본질(만나의 종결)만을 보존했지만, MT는 “유월절-소산-만나의 중단”을 반복적 구조로 강조하여,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뿌리를 내린 새 공동체임을 부각시킨다.⁴³

2) 본문비평의 결론: 번역 특징과 본문사적 함의

여호수아 5장 2-12절은 단순한 전승이 아니라 여러 시대를 거치며 편집된 복합적·다층적 본문이다. 본래의 간단한 이야기-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직전에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고 만나가 그친 사건-은 후대의 편집자들에 의해 확장되고 재구성되었다.

LXX는 “두 번째”(דְּוִיטָא)와 같은 반복 표현을 담지 않는다(5:2). “광야에서 죽은 세대”에 대한 상세한 설명(5:4-7)도 없다. 결과적으로 짧고 단순한 이야기 구조를 유지한다. 따라서 LXX는 가장 초기적이고 원형에 가까운 전승을 보존한 것으로 평가된다.⁴⁴

MT는 LXX에 비해 설명과 반복이 많다. 여호수아 5장 4-7절에서는 출애굽 세대가 이미 할례를 받았으나 광야에서 죽었고, 새 세대가 다시 할례를 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9절에서는 “길갈”과 “굴러가다”의 언어유희를 통해 “애급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신학적 의미를 부여한다. 5장 10-1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다”, “그 달 십사일 저녁”, “그 다음 날” 등 시간과 장소 규정을 강조하면서, 제의적·울

43 Butler, *Joshua* (1983), 139-140.

44 van der Meer, 위의 책, 249-415.

법적 성격을 강화한다. 따라서 MT는 포로기 이후 신명기체와 제사장적 편집층의 흔적을 보여준다.⁴⁵

4QJosh^a는 2, 4-6절에서는 LXX와 유사하고, 9-10절과 12절 등에서는 MT와 일치한다. 이는 4QJosh^a가 LXX의 초기 전승과 MT의 확장된 형태를 모두 반영한 본문임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이 본문에 관한 편집사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4. 여호수아 5장 2-12절의 편집사 연구

2절

2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다. 할례의 명령과 실행을 언급하지 않고 먼저 부싯돌 칼들을 준비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다소 특이하다. 부싯돌 칼이 등장하는 다른 본문은 출애굽기 4장 24-26절의 난해한 본문이다. 이 시점에서 원시적인 부싯돌을 사용하라는 명령은 아마도 매우 오래된 의식을 재확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⁴⁶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절 후반부에 LXX에는 וְשִׁוּב וּשְׁנִייתָ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MT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고 명한다. 이는 고대 전승을 재확립하고자 하는 MT 편집자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홈즈(Holmes), 올드(Auld), 사슨(Sasson), 핀켈(Finkel)과 같은 학자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이미 할례를 받은 자들에 대한 두 번째 할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 왔는데, 이는 본래의 할례와 현재의 재시행 사이의 구분을 의미

45 Dozeman, 위의 책, 254-327.

46 van der Meer, 위의 책, 292.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⁴⁷ 이들의 주장은 아브라함(창 22:15)과 엘리야(왕 상 19:7)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두 번 나타나는 이야기나 제사장이 피부 병을 두 번 조사하는 이야기(레 13장), 행군을 위해 나팔을 크게 두 번 부는 이야기(민 10:6), 야훼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 임하는 말씀(요 3:1) 등을 통해 지지된다.⁴⁸ 4QJosh^a에 שניית가 나타나지 않는 것 역시 LXX의 우선성을 입증한다.⁴⁹ MT에 나타나는 שניית는 “다시 행하다, 반복하다”라는 더 넓은 어원적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마소라 본문의 문장은 대부분의 현대 학자들이 이해하는 바와 같이, 고대 예식의 재확립, 곧 할례 의식의 재시행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고대 예식의 재확립에 관한 사상은 히브리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도 발견된다. 요시아(역대기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사사 시대 이래로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 예식을 회복시키는 이야기(왕하 23:22; 대하 30:26). 또 다른 예로, 느헤미야 8장 13-18절에서 여호수아 시대 이후 방치되어 왔던 초막절 절기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그 예이다.⁵⁰ 그렇다면 MT에서 두 번째 할례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이미 한 번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신 10:16; 30:6)를 요구하셨기 때문이다.⁵¹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했는데, 그들의 살에 기록하여(즉, 새겼다) 두 번째로 표시되었다(שניית). 이것이 곧 동사 שניית(반복하다, 다시 행하다)의 의미로 이해된다.⁵² 의도는 동일하다. 곧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과 광야에서의 방황의 시기가 끝나고 약속

47 위의 책, 292.

48 Dozeman, 위의 책, 297.

49 위의 책.

50 van der Meer, 위의 책, 293.

51 Butler, *Joshua* (2014), 334.

52 van der Meer, 위의 책, 293.

의 땅이 이제 점령되려는 시점이다. 이러한 새로운 시작은 고대 의식의 재확립으로 표시된다. MT는 할례에 사용될 도구를 **הַרְבֹּת** ('돌칼' 또는 '부싷돌')로 LXX는 *ἐκ πέτρας ἀκροτόμου* ('단단한 돌')로 표현한다. '단단한 돌'은 신명기 8장 15절의 물이 나오는 단단한 반석과 연결되고,⁵³ '부싷돌'은 출애굽기 20장 25절과 신명기 27장 5-6절의 제단에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라는 명령과도 연결된다.⁵⁴ 이는 '단단한 돌'을 제의와 연결하려는 신명기적인 편집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호프만(H. D. Hoffmann)과 아이니켈(E. Eynikel)은 열왕기하 23장 22절을 포로 이후의 신명기사가의 편집 본문으로 이해한다.⁵⁵ 이러한 본문들은 종종 "근원으로의 회귀"라는 사상과 연결되는데,⁵⁶ 이는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정치적 회복기 동안 (느헤미야 8장) 고대의 잊혀진 전통을 되살리는 신명기적인 편집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단한 돌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는 LXX의 초기 전승에 MT의 **שִׁנִּית**라는 단어가 추가되고 LXX의 **שֶׁבַח** 동사가 MT에서 **שִׁבַּח** 동사로 수정되어 할례 의식의 재확립을 강조하는 후대의 신명기적인 편집본문으로 완성되었다.

3절

3절의 '할례산'이라는 지명은 전치사 **אֶל** 뒤에 단수 명사구 **גִּבְעַת הָעֵרְלוֹת**이 결합된 것으로 직역하면 '포피의 언덕'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다의적 표현으로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을 지리적 명칭으로 보

53 Nelson, 위의 책, 122.
 54 Butler, *Joshua* (2014), 333.
 55 E. Eynikel, *The Reform of King Josian and the Composi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Leiden/New York: Brill, 1996), 292-294.
 56 van der Meer, 위의 책, 293. 반 더 메어는 왕하 23:2은 아시리아 제국시대의 회복기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한다.

고, 현재의 내러티브에서 기원론적 전승(etiological point) 요소로 이해한다.⁵⁷ 소긴(Soggin)은 할레산에 대한 유래담은 길갈에서의 할레 및 유월절 의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언덕이 수세기 동안 내려오면서 버려진 포피들이 쌓여서 형성된 것으로 사람들이 믿었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이 지역 근처에 특별한 한 언덕에서 거행된 종교 의식과 관련있다는 것이다.⁵⁸ 그는 아직 할레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길갈에서 행해진 유월절 축제 의식에 동참시키기 위해 길갈 성소 부근의 한 언덕에서 할레가 거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⁵⁹ 이 구절은 부싯돌과 할레산에 관한 민속학적인 세부사항을 담은 구두설화(oral narrative)⁶⁰에서 발전한 기원론적인 유래담을 포함한 이 본문의 기본층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다”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레를 행하다”라는 표현은 2절과 3절에 중복(redundancy)해서 나타나는데, 이는 2절의 후대 편집자에게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4-7절 할레를 시행한 까닭

4-7절은 여호수아가 할레산에서 할레를 행한 이유를 설명한다. 소긴은 이 본문이 길갈 제의 본문 안에 통합되기 전까지만 해도 출애굽기 12장에 요구된 조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록되었거나 아니면 유월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는 본문 속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할레를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한 만족할만한 답이 나타나지 않으며 70인역이 오히려 타당성 있는 설명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본문이 길갈 전승이 편집되기 이전에 기록된, 고대의 길갈 전승사

57 van der Meer, 위의 책, 294.

58 Soggin, 위의 책, 95.

59 위의 책.

60 Butler, 위의 책(2014), 335.

가 편집되기 이전에 기록된 자료라 여기고, 복잡하고 인위적인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었을 것이라 주장한다.⁶¹ 이 과정을 추적하기는 쉽지 않지만, 본문에 나타나는 중복을 통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할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행해지지 않았고,⁶² 블레셋에서도 행해지지 않았다.⁶³ 이집트에서 할례는 상류계층의 하나의 관례적인 관습으로 사춘기 남자에게 시행되는 성년의식이었다.⁶⁴ 이스라엘의 할례는 유아들에게 행해졌으며 여호수아 5장 4-7절 단락은 성년에게 베풀어진 독특한 흔적들 가운데 하나이며 이 의식을 앓아서 행했다는 70인역의 독법을 따른다면 이 단락이 이집트의 관습과 관련된 초기 전승이었을 것으로 보인다.⁶⁵ 4-5절의 핵심은 ‘이전 세대는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들은 할례를 받았으나 광야 길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전 세대는 할례를 받았다’는 5a절은 이전 세대의 죄를 면해주기 위한 편집적인 첨가라고 주장하지만, 5b절에 나오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표현은 이전 세대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⁶⁶

편집사적으로 볼 때, MT의 편집자들은 이전 전승을 재해석(reinterpret)하거나 수정하였다. LXX가 보존한 “보편적 언약의 지속성”에 비해, MT는 여기에 “불순종에 대한 법적 제재”(창 17:14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를 추가하여 율법화된 언약 신학으로 발전시켰다. 반면 SP는 MT와 LXX를 모두 재구성하여 그리심 산 중심의 사마리아 예전

61 Soggin, 위의 책, 97.

62 위의 책, 96.

63 사 14:3, 15, 18; 삼상 17:26; 18:25; 삼하 1:20; 대상 10:4.

64 Soggin, 위의 책, 96.

65 위의 책, 96.

66 van der Meer, 위의 책, 295.

전통을 정당화하는 율법-언약 통합 서사를 형성하였다.⁶⁷ 2절에 관한 본문비평에서 살펴본 것처럼 SP는 창세기 17장과 여호수아 5장을 하나의 서사로 통합함으로써, 할례를 단지 조상의 명령으로서가 아니라 언약의 성취이자 공동체 정체성의 예전적 행위로 재해석한다.⁶⁸ 즉, SP의 신학에서 길갈의 할례는 아브라함 언약의 실현이자 율법 공동체의 재확인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LXX → SP → MT로 이어지는 발전 단계는 본문적 복잡성의 심화일 뿐 아니라, 신학적으로 보편적 기억(기원) → 영토적 성취(정착) → 율법적 정체성(제도화)으로 발전하는 변증 구조를 반영한다.

6절은 할례 받지 않는 것을 야훼에게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다.⁶⁹ 5절 후반절은 4절 후반절의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라는 어구를 중복(redundancy) 사용하는데 이는 5b-6절의 신명기적인 편집적 첨가의 결과이다. 70인역에서는 다른 민족에게 하나의 가입 의식에 지나지 않았던 할례 의식을 마소라 본문은 이 의식을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의식과 조화시켜 계약이라는 이데올로기로 통합시키고자 하며 이 의식은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 준수해야 하는 국가적인 결단행위로 연결하고자 한다.⁷⁰ 바빌론에 있는 신명기적인 편집자는 포로민들에게 안식일 준수나 정결법 같은 관습들과 제의적인 의식들과 마찬가지로 할례 역시 야훼 공동체로서의 민족적 동

67 Gary N. Knoppers, *Jews and Samaritans: The Origins and History of Their Early Rel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113-118.

68 Soggin, 위의 책, 94-96.

69 Butler, *Joshua* (1983), 145.

70 Soggin, 위의 책, 96.

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신앙적 행위임을 강조한다.⁷¹ 7절은 3-5a절에 연결되어 이전 세대가 죽고 광야 길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던 그들의 대를 잇는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했음을 보여주는 기본층이다.⁷²

여호수아 5장 4-7절은 할례 전승이 세대를 거치며 지속적인 신학적 재해석을 거쳐 발전해 온 역사적 증거를 보여준다. 가장 초기의 층위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간절한 갱신의례 전승이었으나, 이후의 신명기 계 및 포로기 이후 편집자들은 이를 언약 정체성의 신학적 교훈으로 확장하였다. LXX는 이 전승의 단순한 형태를 보존하고 있으며, SP는 창세기 17장과의 조화를 통해 하나의 통합된 언약 신학으로 재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MT는 반복, 강조, 언어 유희 등을 추가하여 포로기 이후 공동체가 자신들의 율법과 전통을 복원하며 정체성을 재확립하려는 신학적 의도를 드러낸다.

8절

노트와 프리츠와 도즈만은 이 구절을 이 이야기의 윤곽을 이루는 기본층으로 구분한다.⁷³ 8절은 모든 백성이 할례를 마치고 진중에 머물며 낮기를 기다렸다는 내용으로 할례 이야기를 가나안 정복 전쟁과 연결하는 기본층에 속한다.

9절

9절에는 “길갈”이라는 지명에 관한 기원론(etiological point)이 나타

71 위의 책.

72 van der Meer는 여호수아 5장 4-7절 전체를 신명기 사가의 편집 본문으로 이해한다. van der Meer, 위의 책, 304.

73 Dozeman, 위의 책, 296.

난다. MT 여호수아 5장은 גִּלְגָּל(“길갈”)과 גִּלְוָתִי(“내가 굴러가게 하였다”) 사이의 언어 유희와 반복을 추가하여, 언약 갱신의 신학적 상징성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공동체 정체성 강화 의도를 반영한다.⁷⁴ 길갈은 “뒤엎다, 역전시키다”는 뜻의 어근에서 유래한 것으로 ‘야훼께서 이집트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본문은 말한다.⁷⁵ 도즈만은 ‘이집트의 수치’를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에서의 무할레 상태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⁷⁶ 물론 창세기 34장 14절은 무할레를 수치라고 부르지만,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할례를 받았다고 언급하기 때문에 이 수치를 무할레와 연결하기는 쉽지 않다.⁷⁷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애굽과 경쟁하던 시기로 제국에 맞서 싸웠던 요시야 시대의 소망을 담은 표현으로 이집트와 관련된 모든 수치는 떠났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⁷⁸ 이 내용은 여호수아 3-4장의 요단강 도하 이야기 특히 4장 20-24절의 길갈에 세워진 열두 돌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으로 할례를 제의 예식의 준수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승리를 연결하는 요시야 시대의 신명기적인 편집이다.⁷⁹

10-12절 (유월절 지킴, 만나그침)

10절

이 구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내용이 나온다. 소긴은 여기에서 “길갈”과 “여리

74 Butler, *Joshua* (1983), 143-145.

75 Soggin, 위의 책, 99.

76 Dozeman, 위의 책, 298.

77 Butler, *Joshua* (2014), 336.

78 van der Meer, 위의 책, 337.

79 위의 책, 337.

고 평야” 둘 중에 하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⁸⁰ 넬슨은 여호수아 5장 8-9절과 5장 10-12절이 문맥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여호수아 4장 19절과 여호수아 5장 10절이 나란히 *wayiqtol* 형태로 시작되는 점과 여호수아 4장 19절과 5장 10절에 같은 언어 표현이 나타나는 점에 주목한다.⁸¹ וַיִּחַנּוּ בְנֵי יִשְׂרָאֵל בְּגִלְגָּל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 쳤고”)는 LXX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LXX에는 길갈 진영이 언급되지 않지만, MT에는 길갈 진영이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이 점에서 홈즈(Holmes), 벤자민(Benjamin), 올드(Auld), 마조르(Mazor), 드 트로이어(De Troyer) 등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후기 편집 과정에서 길갈을 강조하기 위한 삽입이라고 본다.⁸² 홀렌베르그(Hollenberg)는 MT 여호수아 10장 15절과 43절의 이중 서술(plusses)을 LXX에는 없는, 마소라 본문에만 보존된 후기 첨가로 보았다. 만약 길갈에 이스라엘의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관심이 반영되었다면, 이러한 길갈 언급은 일관되게 나타나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길갈 진영에 대한 언급은 여호수아 9장 6절에도 나타나며, 14장 6절에서도 전체되어 있다. 더 나아가, 길갈 지역은 앗수르 시대 초기에 이미 버려졌을 수도 있다. 아모스(4:4; 5:5)와 호세아(4:15; 9:15; 12:12)에서는 길갈이 우상숭배의 장소로 일관되게 묘사된다. 그러므로 제2성전기 이후의 서술자들이 이 악명 높은 장소를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여호수아 5장 8절과 10장 15-43절 사이의 반복적 연결 구조는 편집자가 오직 정밀한 배열을 위해 추가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 또는 서사적 목적으로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80 Soggin, 위의 책, 99.

81 Nelson, 위의 책, 78.

82 van der Meer, 위의 책, 316.

상황 속에서, 헬라이어 번역자(LXX 역자)가 24장 1절-25장 1절에서 “실로”(Shiloh) 대신 “세겜”(Shechem)을 택했던 것처럼, 마소라 본문에 나타난 길갈 반복 역시 동일한 신학적·편집적 의도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MT 여호수아 5장 10a절의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다”는 표현은 전체 5장 10절-12a(β)절 단락의 후대 편집적 추가(redactional addition)를 소개하는 회귀적 연결(Wiederaufnahme) 역할을 한다.⁸³ 여호수아 5장 10b절에서 유월절의 준수가 MT와 LXX 모두에 언급된다. 여기에는 “그 달 십사일 저녁에는”이라는 날짜에 관한 언급이 나타난다. 소긴은 10절의 유월절 날짜에 대한 언급, 유월절과 누룩 안든 빵의 결합을 고려한다면 이 본문이 신명기 사가에 의해 편집되었다 할지라도 이 본문을 후대의 것으로 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⁸⁴ 많은 학자들이 지적했듯이, “그 달 열나흘째 날”이라는 구체적 날짜가 여호수아 4장 19절의 “첫째 달 열흘째 날”과 결합된 것은, LXX가 증언하는 바와 같이 동사 **עָשָׂה** (“행하다, 지키다”)와 함께 사용되며, 이는 오경과 여호수아서의 제사장계 층위에 고유한 요소이다. 유월절의 날짜와 관련된 구체적 규정은 출애굽기 12장 6절, 레위기 23장 5절, 민수기 9장 5절 및 28장 16절, 에스겔 45장 21절, 에스라 6장 19절, 역대하 35장 1절 등, 제사장계 전승에 의존하거나 깊이 관련된 본문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열째 날-열나흘째 날의 연속 구조(수 4:19 → 5:10)는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달의 열흘째 날에”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규정과 일치한다.⁸⁵ 즉, 달의 열흘째 날은 유월절 준비일이며, 열나흘째 날은 실제 유월절 행사 일이라는 제사장계 규정을 충실히 반영한다. 특히, 본문에서 달이 가나

83 위의 책, 317.

84 Soggin, 위의 책, 99.

85 Dozeman, 위의 책, 298.

안식 이름인 아빍(*Abib*)월로 불리지 않고, 단순히 숫자로만 표현된다는 점은 포로기 또는 포로기 이후에 해당 본문이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바빌론 포로 시기 동안 이스라엘 달력이 새롭게 도입되었음을 반영한다. **עֲשֵׂה אֶת הַפֶּסַח** (“유월절을 지키다”)라는 표현(출 12:48; 민 9:2, 5; 대하 30:1-2; 35:16-17)과 **בַּעֲרֹב** (“저녁에”)라는 표현(출 16:12; 출 29:39, 41; 출 30:8 등)은 제사장 전승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⁸⁶ 여호수아 5장 10b 절의 이러한 제사장적 요소는, 본문이 단순한 내러티브 사건이라기보다는 후기 제사장계 편집(RedP)의 산물임을 시사한다. 이는 본문 전체(여호수아 5:10-12a)의 추가적 요소들과 함께 제사장계 배경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⁸⁷

또한 여호수아 5장 10b 절-11a 절에서는 유월절(**פֶּסַח**)과 무교병(**מַצּוֹת**)이 직접 연결되어 나타난다. 이는 본문이 MT와 LXX 모두에서 제사장적 전승을 반영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⁸⁸

11절

유목민의 축제는 누룩 안든 빵과 볶은 곡식을 먹음으로써 수확의 첫 소출을 축하하는 농경의식과 혼합되었다. MT 본문에 의하면 누룩 안든 빵은 유월절을 위한 것이고 땅의 소출은 유월절 다음 날을 위한 것이다. 반면에 70인역에서는 누룩 안든 빵 등이 그 땅의 소출이다. MT 본문은 이 지역에서만 행해졌던 고대의 관례를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긴은 추측한다.⁸⁹ 유월절과 누룩 안든 빵의 결합은 언제나 결합된 것은 아니다. 출애굽기 12장(non-P)에서 두 의식은 이미 출애굽

86 van der Meer, 위의 책, 318.

87 위의 책, 319.

88 위의 책, 320.

89 Soggin, 위의 책, 101.

이라는 거룩한 역사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누룩 안든 빵과 곡식이 거룩한 땅의 첫 소출, 곧 최초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는 요소라는 것이 가능하다. 볶은 곡식은 길갈 특유의 요소임에 분명하다.⁹⁰

반면에, 벨슨은 MT 편집자가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던 때에 가나안 소산을 먹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적인 표현을 넣은 편집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MT의 저자는 여호수아 5장 10절에 이스라엘이 그 달 십사일에 유월절을 지켰다고 보도한 다음, 여호수아 5장 11절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었다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유월절 다음날에(ממחרת הפסח)’라는 표현을 추가했다고 주장한다.⁹¹

여호수아 5장 11절의 קָלוּי(“볶은 곡식”)은 레위기 23장 14절과 연결된다. 이 단어는 히브리 성경에서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데, (레 2:14; 삼상 17:17; 25:18; 삼하 17:28; 룻 2:14 외에) 여호수아 5장 11절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⁹² 슈토이에르나겔(Steuernagel)이래 학자들이 지적했듯이, וְקָלוּי לַחֵם(“빵과 볶은 곡식”)의 결합은 히브리 성경에서 독특하다. 사용 빈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이 우연히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로제(M. Rose)는 신명기계-사제적 전승의 접면을 논하면서 본문이 절기 규정과 상호 호응하도록 편집된 상황을 관찰한다.⁹³ 오히려 이는 레위기 23장의 유월절 규례와 무교절 규례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레위기 23장 9-14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 첫 소산물을 먹는 규례를 제시하며, 여호수아 5장 11-12절은 이 규례가 실제로 적

90 위의 책.

91 Nelson, 위의 책, 80.

92 van der Meer, 위의 책, 320.

93 M. Rose, *Deuteronomist und Jahwist: Untersuchungen zu den Berührungspunkten beider Literaturwerke* (ATANT 67;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1981), 39.

용된 사건으로 묘사된다. 따라서 여호수아 5장 10b-12절은 현재 우리가 가진 복합적 형태의 레위기 본문에 의존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 즉, 여호수아 5장 11절의 볏은 곡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먹은 모든 소산물을 상징하는 *pars pro toto* (부분이 전체를 대표)로 이해될 수 있다.⁹⁴ 도즈만은 무교병과 볏은 곡식을 먹었다는 표현이 함께 나타나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1-20절과 레위기 23장 4-8절을 고려해 유월절과 무교절의 결합을 나타내기 위한 P 편집자의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한다.⁹⁵

여호수아 5장 10-12절은 레위기 23장 1-8절, 9-14절 본문을 전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레위기 23절 11(15)절의 מִמַּחֲרַת הַשֶּׁבֶת(“안식일 다음 날”)은 첫 번째 달의 동일한 시기(유월절/무교절 축제 기간)에 있는 절기 규정을 연결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 5장 10-12절의 본문은 레위기 23장 1-8절과 9-14절의 두 전승을 연속적으로 결합한다.⁹⁶ MT 여호수아 5장 11절에만 나타나는 מִמַּחֲרַת הַפֶּסַח(“유월절 다음 날”)이라는 표현은 히브리 성경에서 민수기 33장 3절에도 등장하는데, 이 본문 역시 분명히 제사장적 기원을 가진다. 민수기 33장 3절에서는 이 표현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시작되는 시점을 가리키는 지표로 사용된다(מִמַּחֲרַת הַפֶּסַח יֵצְאוּ בְנֵי־יִשְׂרָאֵל “유월절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이 출발하였다”). מִמַּחֲרַת בְּאֹכְלָם(“그들이 먹은 다음날에”)라는 어구는 12절에도 나타나는데 מִמַּחֲרַת은 MT의 편집적인 첨가이다. 따라서 동일한 표현이 MT 여호수아 5장 11-12절에서도 사용된다는 점은, 제사장적

94 van der Meer, 위의 책, 320.

95 Dozeman, 위의 책, 300-301.

96 van der Meer, 위의 책, 321.

층위에서 민수기 33장 3절과의 문학적 연결(포함구, inclusio)을 형성하기 위해 편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⁹⁷

12절

약속된 땅의 소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자 만나는 중단된다. 이스라엘은 아직 그 땅을 정복하지는 않았지만 그 땅의 산물에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 땅의 요새를 이스라엘에게 주시기에 앞서서 그 땅의 열매를 주시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⁹⁸ 이제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새롭게 경험하는 봄의 수확이라는 엄청난 기적이 광야에서 받았던 기적적인 도움을 대신하게 된다.⁹⁹ 나약하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가나안 사람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합주의에 물들지 않고 자신들의 전통을 의존하는 한 미래를 대망할 수 있다. 소긴은 신명기 사가가 거룩한 땅에서 거행된 첫 유월절 의식을 확신에 찬 희망의 원천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여겼다.¹⁰⁰

여호수아 5장 12절 본문은 중복구를 담고 있다. “다음 날”(ממחרת), “그 땅의 소산물”(ממעבור הארץ), “이스라엘 자손들”(בני ישראל)이 10절과 11절에서 사용된 표현이다.¹⁰¹

שבט 동사는 히브리 성경에서 총 43회 등장하는데, 이는 다른 셈어권 언어들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שבט 동사는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 전승에 나타난다. “만나가 그친 사건”은 출애굽기 16장 35절의 만나

97 위의 책, 321-322.

98 Butler, *Joshua* (2014), 338.

99 Soggin, 위의 책, 101.

100 위의 책, 102.

101 van der Meer, 위의 책, 322.

가 내리는 이야기의 결론과 수미쌍관(inclusio)을 이루며, 만나 사건(출 16장)과 약속의 땅 진입 사이에 신학적 연결을 형성한다.¹⁰²

כַּנְעָנִי אֶרֶץ (“가나안 땅”)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16:35절에도 나타나는 P 전승과 관련이 있다(창세기 12:5; 13:12; 17:8; 23:2; 44:8; 45:17, 25; 46:6, 12, 31 등). 이 표현은 제사장 문헌(P)에서, 특히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에서 제사장적 저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여호수아 5장 12절은 제사장계 층의 연속적 축적(post-P layers)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¹⁰³ 반 더 메어는 이 표현이 제사장계 교정(Priestly correction)이라고 주장한다.¹⁰⁴ 루돌프(W. Rudolph)와 바헤나르(J. Wagenaar) 역시 이 구절에 나타나는 곡식과 관련된 단어들이 아람어와 관련 있다고 주장하며, 이 또한 편집자의 비교적 후기적인 요소를 반영한다고 말한다.¹⁰⁵

그러므로 여호수아 5장 12절은 후기 제사장계 교정의 일부로 이해해야 하며, 이는 제사장계 이전 본문(pre-P)에 대한 수정이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 설명(“가나안 땅”)이 아니라, 훨씬 더 구체적인 시간적 규정이다. MT는 “그들이 곡식을 먹은 다음 날”이라는 어구를 추가해서 문맥을 강화하기 위한 편집적 교정을 시도한다.¹⁰⁶ 따라서 짧은 본문인 여호수아 5:10-12는 전체적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제사장적 저자가 여호수아서의 전승을 제사장적 입법(레 23:4-8, 10-15; 민 9:2, 5 등)에 맞추기 위해 첨가한 것이다. 여호수아 5장 10b절은 오래된

102 Dozeman, 위의 책, 301.

103 van der Meer, 위의 책, 324.

104 위의 책, 325.

105 W. Rudolph, *Der "Elohist" von Exodus bis Josua* (Berlin: Akademie Verlag, 1938), 212; J. Wagenaar, *Origin and Transformation of the Ancient Israelite Festival Calendar* (Berlin: De Gruyter, 2005), 178.

106 van der Meer, 위의 책, 325.

제사장 이전의 주석이었을 가능성이 크며, 그것이 여호수아 5:10-12 전체 수정의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어쨌든, 11-12절의 시간 관련 요소들은 칠십인역(LXX)에는 나타나지 않거나, 다른 방식(예: 히브리어 MT의 הַיּוֹם הַזֶּה בַּעֲצָם의 위치가 LXX에서는 다름)으로 반영되어 있다.¹⁰⁷ 비버슈타인은 LXX가 후기 제사장계 교정 이전의 히브리어 본문(*Vorlage*)을 보존했고 MT가 이를 더 확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¹⁰⁸

5. 나가는 말

여호수아 5장 2-12절은 단일한 전승이 아니라, 여러 시대를 거치며 축적된 다층적 편집의 산물이다. 본문은 가나안 정복 직전의 제의적 사건을 기록한 짧은 서사에서 출발하였으나, 이후 각 시대의 역사적 상황과 신학적 요구에 따라 재구성되고 확장되어 오늘날의 형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문은 단순한 의례 기록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 대마다 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을 재해석한 신학적 기록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가장 기초적인 층위인 기본층(여호수아 전승 혹은 초기 제의 전승)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시점에서 길갈에서의 집단적 할례, 유월절, 만나의 중단을 간결하게 서술한 본문이다(5:3-5a, 7-8, 12a). 이 전승은 광야 시대의 종결과 약속의 땅으로의 진입이라는 신학적 전환점을 상징하며,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선언하는 역할을 한다.

107 위의 책, 326.

108 K. Bieberstein, 위의 책, 70-71, 210-223; van der Meer, 위의 책, 326.

이후 역사적 변화 속에서 본문은 여러 차례 확장과 재해석을 겪었다.

먼저 앗수르 제국 시대(기원전 7세기)의 편집층은 요시아 개혁과 같은 회복 신학을 반영하며, 길갈을 언약 공동체의 기념 장소로 강조하였다. 특히 9절의 어원적 설명(“길갈-굴리다”)은 당시 이집트와의 정치적 경쟁 상황 속에서 “열국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야훼의 주권”을 드러내는 신학적 장치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바빌론 포로기(기원전 6세기)의 신명기적인 편집자는 본문을 “무할레-할레”의 구조에서 “불순종-죽음-갱신”의 구조로 재편하였다(5:5b-6). 여기서 세대 간의 대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불순종의 비극을 신학적 교훈으로 전환하는 신명기적 신학화 과정을 보여준다.

페르시아 제국 시대(기원전 5세기)에는 제사장 문서(P)가 개입하여 유월절, 무교절, 곡물제의 시간 규정을 재조정하고 제의적 세부사항(5:2, 10b-11, 12b)을 강화하였다. 이 시기의 편집은 레위기 23장과 출애굽기 16장의 절기 규정과 조화를 이루며, 포로기 이후 공동체가 예전 질서를 회복하고 정체성을 재확립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MT의 형성기(기원전 4-3세기경)에 이르러 본문은 반복, 강조, 어원적 언어유희(특히 2절(שוב)와 שנית), 10a절 등)를 추가하며 신학적 교훈성과 규범성을 강화하였다. 이는 포로기 이후 공동체가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을 ‘율법과 옛 질서의 회복’이라는 신학적 틀 안에서 재구성하려는 의도적 편집 행위로 이해된다. 이 과정에서 이전의 단순한 제의 서사는 제거되고, 교훈적·율법적 신학 체계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발전 과정 속에서 사해사본 4QJosh^a는 LXX와 MT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다. 일부 구절에서는 LXX의 간결한 형태를 따르고, 다른 부분에서는 MT의 확장된 형태를 보존함으로써, 본문 전통이 단선적으

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복수의 전승이 상호 교차하며 형성된 유동적 과정임을 보여준다. SP는 창세기 17장과 여호수아 5장을 통합하여 할례를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이자 율법 공동체의 정체성 재확인으로 재해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언약을 지킬지니라”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등의 삽입을 통해 율법-언약 통합 신학을 완성하였다.

결과적으로 본문은 LXX → MT로 이어지는 발전 과정 속에 4QJosh^a와 SP가 영향을 주고 받으며 단순한 제의 전승에서 법적·신학적 체계, 그리고 공동체 정체성의 신학적 선언으로 발전하였다. 이 편집의 축적은 앗수르-바빌론-페르시아 시대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각 시대의 공동체가 자신들의 존재와 신앙을 어떻게 정당화하고 재해석했는지를 보여주는 신학적 흔적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호수아 5장 2-12절은 단순한 전승의 집합체가 아니라, 각 시대의 신학과 현실이 상호 작용하며 서로를 재해석한 결과물이다. 본문은 단순한 정복의 기록이 아니라, 광야에서 길갈로, 그리고 포로기 이후의 율법 공동체로 나아가는 신학적 자기서사(theological self-narrative)를 보여주는 포괄적인 종교 문서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신앙의 근원을 “다시 쓰며(rewriting)”, 할례-유월절-만나의 전승 속에 “광야의 여정에서 언약 공동체로 이행하는 신학적 여정”을 새겨 넣었다.

참고문헌

- 김동혁, “헤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구약논단」 27권 3호(2021), 131-154.
김상래, “아이 성 정복 실패가 진정 아간 때문만인가? 여호수아 7장 2-5절에 대한 비평적 분석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18권 4호 (2012), 72-95.
방기민, “회복의 읽기를 통한 여호수아 헤렘 본문의 윤리적 해석,” 「구약논단」 27권 1호 (2021), 61-96.

- 이은우, “기브온 족속 이야기의 형성사 연구(수 9:1-27),” 「구약논단」 28권 3호 (2022), 246-270.
- Auld, A. Graeme. *Joshua: Son of Nun in Codex Vaticanus*. Leiden: Brill, 2005.
- Baruch, Benjamin. *Gilgal: The Symbolism of Covenant Renewal in Joshua 5*. Jerusalem: Magnes Press, 2005.
- Boling, R. G. and G. Ernest Wright, *Joshua: A New Translation with Notes and Commentary*. AYB, vol. 6,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95.
- Butler, Trent C. *Joshua*.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7. Waco, TX: Word Books, 1983.
- _____. *Joshua 1-12*. WBC, vol. 7A.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4.
- Childs, Brevard S. “A Study of the Formula ‘Until This Day.’”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82, no. 3 (1963): 279-292.
- Dozeman, Thomas B. *Joshua 1-12: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hor Yale Bible, vol. 6B.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5.
- Elliger, Karl, and Wilhelm Rudolph, eds.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7.
- Eynikel, Erik. *The Reform of King Josian and the Composi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Leiden/New York: Brill, 1996), 292-294.
- Floyd, M. H. “Deuteronomistic Historiography and the Circumcision at Gilgal,” *JBL* 111 (1992), 213-230.
- Fritz, Hans-Dietrich. *Das Buch Josua*. Handbuch zum Alten Testament I/7. Tübingen: Mohr Siebeck, 1994.
- García Martínez, Florentino, and E. J. C. Tigchelaar, eds. *The Dead Sea Scrolls: Study Edition*. Leiden: Brill, 1997-1998.
- Gnuse, Robert Karl. *No Other Gods: Emergent Monotheism in Israel*. Sheffield: JSOT Press, 1997.
- Hallo, William W., and K. Lawson Younger, eds. *The Context of Scripture*. 3 vols. Leiden: Brill, 1997-2002.
- Kitchen, Kenneth A. *On the Reliability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2003.
- Knoppers, Gary N. *Jews and Samaritans: The Origins and History of Their Early Rel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113-118.
- McConville, J. Gordon. *Grace in the End: A Study in Deuteronomistic Theology*. Grand

- Rapids: Zondervan, 1993.
- Nelson, Richard D. *Joshua: A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 Noth, Martin. *Das Buch Josua*. 2nd ed. Handbuch zum Alten Testament I/7. Tübingen: J. C. B. Mohr (Paul Siebeck), 1953.
- Polzin, Robert. *Moses and the Deuteronomist: A Literary Study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New York: Seabury Press, 1980.
- Rahlf's, Alfred, and Robert Hanhart, eds. *Septuaginta: Id est Vetus Testamentum Graece iuxta LXX interpretes*.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6.
- Rose, Martin. *Deuteromist und Jahwist: Untersuchungen zu den Berührungspunkten beider Literaturwerke*.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1981.
- Römer, Thomas. *The So-Called Deuteronomistic History: A Sociological, Historical, and Literary Introduction*. London: T&T Clark, 2007.
- Rudolph, Wilhelm. *Der "Elobist" von Exodus bis Josua*. Berlin: Töpelmann, 1938.
- Schmid, Konrad. *Literature and History in the Hebrew Bibl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4.
- Schorch, Stefan. "The Samaritan Version of the Pentateuch and Its Relationship to the MT and LXX," *Textus* 28 (2019): 123-142.
- Soggin, J. Alberto. *Joshua: A Commentary*.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2; revised 1981.
- Steuernagel, Carl.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Leipzig: Hinrichs, 1939.
- Tal, Abraham, and Moshe Florentin, eds. *The Samaritan Pentateuch: The Israelite Samaritan Version of the Torah*. Leiden: Brill, 2010.
- Talmon, Shemaryahu. "Textual Study of the Bible—A New Outlook." In *Qumran and the History of the Biblical Text*, 321-400.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 Tov, Emanuel.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3rd rev. ed.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 Ulrich, Eugene. *The Dead Sea Scrolls and the Origins of the Bible*. Grand Rapids: Eerdmans, 1999.
- Van der Meer, Michaël N. *Formation and Reformulation: The Redaction of the Book of Joshua in the Light of the Oldest Textual Witnesses*. Leiden: Brill, 2004.
- von Rad, Gerhard. *Studies in Deuteronomy*. London: SCM Press, 1953.

- Wagenaar, Jan. *Reading Joshua as Christian Scripture*. Leiden: Brill, 2020.
- Weinfeld, Moshe.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stic School*. Oxford: Clarendon Press, 1972.
- Woudstra, Marten H. *The Book of Joshua*.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1.
- Wright, George Ernest. *God Who Acts: Biblical Theology as Recital*. London: SCM Press, 1952.

디지털 보충 자료

Accordance Bible Software. Version 14. OakTree Software, 2024.

BibleWorks 10. Norfolk, VA: BibleWorks LLC, 2018.

Dead Sea Scrolls Electronic Library. Leiden: Brill, 2020.

검색어

할례, 유월절, 만나, 본문비평, 편집비평

[ABSTRACT]

Hermeneutical Controversy Regarding Circumcision, Passover, and Manna (Joshua 5:2-12): Are There Hermeneutical Differences Among the Manuscripts, and Do These Indicate Editorial Activity?

Eun-Woo Le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study analyzes Joshua 5:2-12 through textual and redaction criticism, focusing on three key motifs: circumcision, Passover, and the cessation of manna. By comparing the Masoretic Text (MT), the Septuagint (LXX), the Dead Sea Scrolls manuscript 4QJosh^a, and Samaritan Pentateuch(SP),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the passage is not a single unified tradition but a multilayered composition shaped through successive editorial stages across diverse historical contexts.

The earliest stratum, represented most clearly in the LXX, consists of a concise narrative describing Israel's collective circumcision, the celebration of Passover, and the end of manna at Gilgal — signifying a theological transition from wilderness wandering to settlement in the Promised Land. Subsequent redactional developments reflect distinct ideological and theological agendas: the Assyrian-period layer (7th century BCE) mirrors restoration ideologies such as Josiah's reforms, employing the wordplay on *Gilgal* ("to roll away") in v.9 to proclaim Yahweh's sovereignty over imperial shame; the Babylonian exilic layer (6th century BCE) reorganizes the text according to the Deuteronomistic

www.kci.go.kr

theology of history, portraying the death of the disobedient generation and covenant renewal by a new one; and the Persian-period Priestly layer (5th century BCE) integrates liturgical regulations drawn from Leviticus 23 and Exodus 16, emphasizing the ritual restoration and identity formation of the postexilic community.

Finally, the MT exhibits theological expansion through repetition, temporal precision, and etymological wordplay-revealing the postexilic editors' intention to reconstruct communal identity through the "restoration of law and tradition." The 4QJosh^a manuscript mediates between the LXX and MT, sharing omissions with the former and expansions with the latter, thus representing an intermediate phase in textual transmission where interpretive amplification had begun but not yet reached full canonical form. The Samaritan Pentateuch (SP), harmonized with Genesis 17, reinterprets circumcision as both covenant fulfillment and communal identity.

Thus, the textual evolution from LXX → MT, with intermediate variants in 4QJosh^a and SP, reveals a gradual transformation from a simple ritual narrative to a complex theological document. Joshua 5:2-12 encapsulates Israel's continual "rewriting" of faith, embedding within the traditions of circumcision, Passover, and manna its theological journey from wilderness wandering to the establishment of a covenantal Torah community.

key words

circumcision, Passover, manna, textual criticism, redaction criticism

투고일: 2025년 10월 20일

심사일: 2025년 11월 10일

게재 확정일: 2025년 11월 22일

www.kci.go.kr